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떨·뜸**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본다

2005. 2호 5월 9일 발행

특집 어느 일요일, 영미의 부재 영화속 삶, 실속 영화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만난 영화 '홀리데이'
여성대학교 후기 여성화학교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교수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2005.02

CONTENTS

02 특집 | 어느 일요일, 엄마의 부재

에는 글 • 02

개네 집은 엄마가 돈 벌고 아빠가 집안일한대 • 04

감정노동, 여성의 삶 • 06

새로운 삶의 형태도 가능하대?

대안적 가사노동 정책 이야기 • 08

10 여성주의 덕보기 커뮤댄스의 젠더체계는 흔들린다

12 즐거운 여자들의 산책

사라진 '버스 안내양' 그녀와의 반가운 만남

14 영화속 삶, 삶속 영화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만난 영화 '홀리걸'

17 광고1 페미니리

18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20 여성주의로 만화읽기

씨우는 여성이며 우주를 통치하라 [웃음]

23 광고2 책슈얼리티문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24 여성학학교 후기

여성학학교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25 교수성폭력 근절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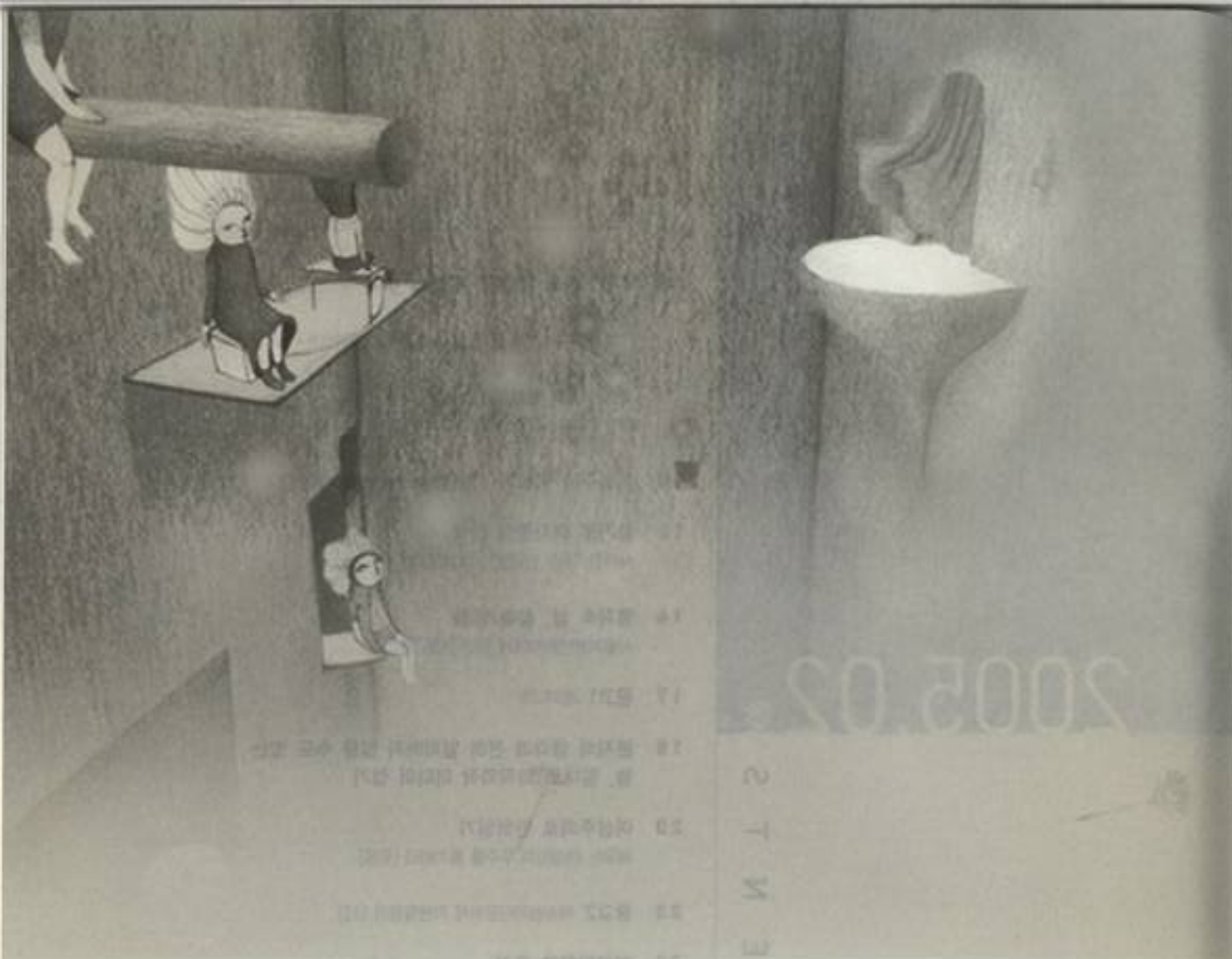
그녀들의 외란된 수업 만들기

29 광고3 모니터 모집

* 1호에 실렸던 열의 「관계하기/ 만나기」 코너는 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고동의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는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 호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다. 느지막하게 일어나보니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간지 오래된 것 같고 엄마는 내가 자는 사이에 일주일치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다. 나쁜 일요일답게 밖에서는 어렴풋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지만 집 안은 무척이나 조용하다. 오빠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다. 점심을 먹기엔 조금 이르지만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배가 고프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간 엄마가 돌아와야 집에 먹을 것이 생긴다. 엄마가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사올 것이 분명하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야지.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았다. 흥밋거리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만 그런다고 배고픔이 잊혀질 리 없다. 그래, 먹을 게 있나 찾아보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지난주에 사다놓은 것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이것저것이 널부러져 있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는 없지만 밑반찬은 눈에 들어온다. 밥은 있나? 냉장고 문을 닫고 전기밥솥을 열어보았으나 말라비틀어진 밥풀뿐이다. 휴- 오랜만에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려 해도 먹을 것이 없구나. 일단 물을 한 잔 들어켜 배고픔을 잊으려 했으나

어느 일요일, 엄마의 부재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니 배만 더 고프다. 할 수 없다. 혼자 라면을 끓여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오빠가 방에서 나온다. 이제 일어난 모양이다. 일어나자마자 첫인사로 하는 말이, "점심 어떻게 했어?" 라면 끓여 먹었어. "밥은?" 없어. "엄마는?" 장 보러 간 것 같아. "배고프다." 라면 끓여먹어. "귀찮아. 라면 끓여줘." 응? "오빠가 배고파서 그래. 라면 끓여줘." 오빠가 끓여먹어. "넌 오빠가 라면 끓여 달라는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이왕 끓이는 거 오빠 것도 끓여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 넌 너무 이기적이야" 오빠가 먹을 거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내 친구는 여동생이 밥도 차려준다더라. 넌 이제 뭐냐?" 흠. "넌 할 줄 아는 게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잖아. 그나마 자기 혼자만 끓여먹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래? 어느 놈이 데려갈지 참 걱정이다." 라면에서 시작해서 저건 무슨 소리람. 자기가 라면 끓여먹기 싫으면 그냥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난 오빠가 더 걱정이다. 누가 오빠랑 살고 싶어나 할까? 그나저나 어느 집 여동생인지 참 걱정되네. 벌써 저렇게 오빠한테 밥 해먹이면 나중에 어쩌려고. 걱정이다 걱정.

개네 집은 엄마가 돈 벌고 아빠가 집안일한다!

아무도 '개네 집은 아빠가 돈 벌고 엄마가 집안일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너무 일상적인 것은 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 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 집 저 집 그 집도 그렇기 때문에(적어도 그런 것 같기 때문에-정말 대단한 화물이 아닌가!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존재하는 집만 따져도 저런 화물이 나올 지 궁금하다) 시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저런 말이 단지 '파란색 장미를 봤어'처럼 화물적으로 특이한 현상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파란색 장미를 봤다는 말에 킁킁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돈 벌고 아빠가 집안일한다!'라는 말 뒤에는 킁킁대지, 이런 의성어가 어울릴 듯하다. 물론 말하는 이도 대개 그런 웃음을 의도했을 것이다. 여기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웃기라고 한 말이 '엄마가 돈 벌고'인지, 아니면 '아빠가 집안일한다'인지, 혹은 둘 다 인지. 엄마가 돈을 버는 상상을 해본다.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요즘 시대엔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질책을 받을지언정(나의 아버지는 '엄마가 집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다'며 나에게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셨다), 우스꽝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엔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상상을 해본다.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요즘 시대엔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리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질책을 받기는 용이하다. 비웃음과 함께, 아빠에게는 집 밖에서 사회적인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는(한편으로 이로써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집안일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어머니 뭐하셔?'라는 질문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 그냥 집에 계시'라든지 '아무것도 안하셔'라고들 대답한다. 정말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는 건가? 어머니의 생활을 직접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런 얘기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걸까? 게다가 왜, 아버지가 하면 웃기고 어머니가 하면 일상적인 것인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어머니 뭐하셔?'라는 질문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 그냥 집에 계시'라든지 '아무것도 안하셔'라고들 대답한다. 정말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는 건가?

가사노동은 한 인간이 살아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딱 그만큼의 생활 노동이다. 가사노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혹시 모든 끼니를 사먹고, 빨아야 할 옷이 생기면 버리고, 청소할 때가 되면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단지 가사노동을 돈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 가사노동은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는 '뒤치다꺼리'로 여겨져 왔다. 늘 누군가 대신 해줘왔기 때문이다. 모두가 밥을 손으로 먹는 사회에 가면 밥을 수저로 먹는 것이 생소한 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누군가 대신 해줘왔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오히려 생소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 주는 그 '누군가'는 늘 여성-어머니로 대표되는-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런 기대(혹은 압박)는 이어지고 결혼과 같이 여성을 가정 안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로써 공고해진다. 결국, 대개 남성들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사노동은 언젠가부터 여성들만의 일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가사노동이 생산해내는 것은 가시적인 재화가 아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사노동은 평가절하 되었다.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가족의 감정 상태를 살피며 관계맺음을 보살피는 일까지, 모든 가사노동은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여성들의 일이 되었다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은 남성들끼리 나눠가지기에도 너무나 부족했다). 또한 가사노동은 엄연히 숙련이 필요한 일이지만(각종 게임을 보라- 바느질, 요리 등도 다 숙련도를 높여야 다음 스킬을 찍을 수 있다) 이제껏 '여성이라면 웬당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사고방식은 가사노동을 여성 고유의 역할로 만들었다.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여성의 노동은 '여차피 집에서도 하는 일인데 밖에서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여성과 가사노동(육아와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맥락이다)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아, 훌륭한 일 가사노동! 이런 훌륭한 일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하였던 우리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름답다는 말로 포장한 것일 뿐, 사실 어머니들의 그런 희생은 우리가 그녀들의 삶을 착취한 것이다. 게다가 가족 간의 관계를 다독여주고, 정작 그녀들의 감정은 삭힌 채 우리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해해주길 바랐던, 감정노동을 강요했던 것까지 생각한다면 가히 그녀들의 삶은 우리에게 의해 삭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의 희생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를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들에게 '희생'이란 이름으로 계속적이고도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문제제기해야 한다. 이런 과정엔 각자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과,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이유에 대한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 (보다 대안적인 여러 방법을 살피는 것은 뒤의 글에서 만날 수 있다)

by_ 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바람은

※ 남성 스스로의 생계에서 발생하는 가사노동은 요리, 육아 등의 공동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남성이 맡아야 할 가사노동까지 포함한다. 특히 육아를 여성이 도맡게 되면서 모든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가 너무 좁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기도 모르겠으나, 집에서 남성이 혼자 갖는 이야기를 할때마다 느끼고 다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여성을 수백 명 마주할 동안

감정노동, 여성의 삶

가사노동, 소위 '엄마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여성이 아내가 되기 위한 과정,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하는 몇 가지 아이터널일 뿐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특히 결혼제도를 통해서 여성이 겪는 특유의 현상은 바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소외이다. 자신의 감정능력을 자율적이고 인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감정노동은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노동이다. 실재하는 것에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주부, 즉 결혼한 여자가 하는 집안일들은 여자라면 모두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여성이 하는 일(가사노동)과 여성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 자체가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여성의 삶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사람들은 여성의 삶과 여성의 일(가사노동)을 뭉뚱그려 그것이 모두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나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결혼을 통해 여성은, 남성의 집안에 편입해 들어간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의 위치에서, 마치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애정'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좋지 않다. 결혼 후 여성에게 기대되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과 여성이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 욕망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한 쪽은 전자 쪽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내,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고, 실제로 강요를 받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아내,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통일된 요소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보살피는 자"의 역할이다. 남편 내조를 잘하고, 남편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화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애정"이라는 행위로 당연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고, 여성이라면 모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하게 굳어져 있다.

부계 가족 사회에서 다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이러한 "보살피는 자"에 대한 임무와 남성의 가족에서 살아남는 노력은 사회적 생존에 문제로 다가온다. 때문에 아내와 며느리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자식들에게 감정이압을 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생존에 필수적인 일들(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특히 결혼제도를 통해서
여성에게 겪는 특유의 현상은
바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소외이다.
자신의 감정능력을 자율적이고
인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은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자신의 자아나 욕망을 주물럭거리고 조절하여,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에 맞게 주조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격, 또는 자아 전체를 양도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¹⁾

이렇게 가사노동, 소위 '엄마일' (밥, 빨래, 청소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살피는 자"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와 가사도우미의 차이점을 생각해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가사노동의 문제에 접근할 때, 그것이 단순히 무임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부에게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사노동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지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아의 소외에 대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접근은 이제까지 축적되고 형성되어온 남성중심의 역사를 뿌리째 뒤 흔드는 것일 수 있다.

여성에게 대한 가사노동, 감정노동에 대한 아우라(aura)는 매우 광범위하며 강하다. 여성이 집 밖을 벗어나는 하더라도, 상당수의 여성이 하는 일은 감정노동과 보살핌노동에 가깝다. 이미 기혼인 여성은 물론이고, 상당한 고학력의 여성이 아니라면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거나 사무직, 경리, 비서, 간병인, 골프 캐디 등등 돌봄의 영역에 관한 한은 여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직장의 유형뿐만 아니라,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 몫을 자연스레 담당하게 되는 이는 여성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살피는 자"로서의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이 서로 단단히 결합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억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심지어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도 겁없이 한다. 여성도 직장을 갖고 있고(이제까지 여성들은 일해 왔으며 현재도 일하고 있다) 결혼을 해서도 하던 일을 유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다만, 여성의 활동범위가 집안에서 집밖으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즉,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들의 매우 중요한, 혹은 당연한 일들이다. 바깥일은 플러스알파 되었을 뿐인 것이다.

by_ 고려 옛바늘 효과 백민배

1) 노동과 제국주의 / 조순경 역권 주 01, 노동계급 사회로가기: 감정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 정호

새로운 삶의 형태도 가능하다!?

대안적 가사노동 정책 이야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아니라 집안 간의 문제이며, 여성은 결혼을 통해 배우자 남성의 집안으로 '편입'되면서 가사노동을 거의 전적으로 떠맡게 된다. 남성들의 평등 의식이 예전에 비해 조금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정도일 뿐 공동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명절이나 제사 등 부계혈통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가사노동은 철저히 '며느리'의 몫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여성에게 강제되고 있는 가사노동은 일상 생활에서의 식사 준비나 빨래 청소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과 남편의 가족들까지 보살피는 감정노동, 육아의 모든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의 여성에게 떠넘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여성이 자신을 맞춰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지 않은가. '살림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효율적'이니까 혹은 '여성들은 원래 집안일에 더 능숙하고 많이 배웠으니까'라는 논리만으로 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가 공모하여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은 단지 가족 단위 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일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잖아?" 라고 반문할 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안적 가사노동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하려 한다.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1,2,3 운동'이니 하는 어이없는 정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상상력의 한국 정부가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좀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싱가폴에서는 가족구성원이 함께 teamwork을 한다는 'family as a team'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community center를 운영한다. 여성이 육아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남성들에게 가사일을 가르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등이 이 정책 안에 속해 있다.

아이는 개별 가정의 구성원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므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산률 저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염려가 넘쳐나는 것만 봐도 출산과 육

아는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실제로 육아를 책임지지는 않고 개인만 책망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육아이며, 여성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다른 여성 - 주로 자신의 어머니, 혹은 남편의 어머니 - 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또한 남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미루면서 흔히 대는 핑계인 '난 안 해봐서 못하니까' 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능력

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숙련되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숙련도는 가치 평가 받아야 하지만, 여성이니까 당연히 가사노동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성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사노동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여성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worker'와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carer' (보살피는 자)의 역할 중 어느 쪽이든 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을 보살피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어느쪽이든 원한다면 'carer' 역할을 선택할 수 있고, 'worker'와 'carer'를 번갈아 가며 할 수도 있다.

이는 남성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이고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조차)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된 성별분업 논리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육아 휴가를 받아 'carer' 역할을 하다가 다시 'worker'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원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여성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직장을 가지려 할 때, 기존 여성에게 비정규직 밖에 돌아오지 않는 한국의 암울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또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정된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기를 계획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는 남편의 가족을 아내/어머니로서 돌보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당한 전담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평등한 가사노동 분배를 위해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계혈통 중심의 결혼/가족제도 자체에 숨어있는 불평등한 요소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계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 대신 가족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은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생겨나는 생활 노동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하는 재생산노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 기피로 인한 고령화 사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불평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가사노동 정책의 사례들을 보면서, 현 상태를 의심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의 형태는 가능하다.

by. 비안 '하느님 건 아니'라고 말하기

집안일



정리 후



커플댄스의 젠더체계는 흔들린다



어쩌면 나는 재미를 붙인 것일지도 모른다. 춤을 청하는 '남자'들에게 "저는 리더예요, 죄송해요."하고 말해주고는, 그들이 당황하며 뛰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나는 '스윙 시스터즈'라는 여성들만의 동호회에서 '스윙swing'이라는 짝춤을 처음 접했다. 많은 커플댄스에서 남자들은 '리딩leading'을 하고, 여자는 '팔로잉 following'을 한다. '이끄는 사람(리더)'과 '따르는 사람(팔로워)'이 그 역할에 맞는 동작을 하면서 짝을 이루어 추는 것이다. 팔로워가 춤을 리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춤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흐름을 잡아 가는 것은 리더들의 몫이다. 나는 1년 반 전, 리더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리더이다.

팔로워들의 동작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두 포지션을 모두 익혀서 포지션을 바꿔가며 춤추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역시 '따라가는 것'을 잘 안 배워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일도 많다.

춤추러 스윙빠에 가면 많은 남자들이 있고, 그들은 거의 전부가 리더이다. 그들이 처음 내게 춤 한 번 추지 않겠냐고 했을 때에는 '저 팔로워 못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못 알아듣곤 했다. '춤 못춰요'도 아니고, '런디(스윙 춤 종류 중 하나)를 못춰요'도 아니고 여자가 '팔로워 못해요'라고 하니, 못 알아듣고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고 다시 물어본다. 그리고는 그래도 괜찮으니 추자고 하는 사람도 여러 명. 이런 사람들 애길 하면서 스윙 시스터즈들은 종종 뒤에서 분개했다. 여자는 당연히 팔로워를 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리더는 그저 걸다리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 동호회의 많은 여자 리더들이 뺨에서 다른 여성들을 리드하며 춤춰도, 팔로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여자는 (본질적으로?) 팔로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몇 곡 팔로워로 추곤 했다. 배려할 줄 알고 호흡을 맞출 줄 아는 남자리더라면 같이 추는 것도 꽤 즐겁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간 한 스윙빠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예전에 같이 했던 걸 기억하는 눈빛으로 춤을 청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리더니까 같이 추지 않겠다고 말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시하게도 내가 살짝 고개를 흔들자 왜 거절하는지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 남자는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나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은 아무래도 리더로만 춤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날부터 나는 "저 팔로워 못해요"가 아니라 "저 리더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냈다고나 할까?

스윙 시스터즈가 생긴 지 3년이 되어가면서, 뺨에 가면 스윙 시스터즈가 어떤 동호회인지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본다. 페미니스트 동호회인지까지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 리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눈치를 채는 남성 리더들이 스윙 시스터즈 중에 춤을 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모르겠다. 춤을 추는 것을 잠깐만 봐도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지는 알기 쉽다. 하지만, 얼마 전에 간 또 다른 뺨에서는 남자(그들은 모두 리더이다)들이 세 명이나



내게 춤을 추자고 했다. 내가 한 시간도 넘게 내내 리더로 춤을 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파마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나를 팔로워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아무리 그래도 리더로만 춤 춘 내게 팔로워도 할 줄 모르는 남자가 춤을 청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역시나, 여자는 누구나 팔로워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춤을 신청하기 전에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예의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춤을 청한 모든 남자에게 "리더예요"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한테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생각해봤다. 내가 리더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가져다줄까? 더 많은 여성들이 리더를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무감각해서 아무런 느낌을 안 가질까? 자신들과 함께 온 동호회의 여성들의 많은 수가 다른 여성 리더들에게 춤을 청하게 되는 상황은?

언젠가 스윙과 관련된 행사에서, 남성 둘이 춤을 추는 것을 '코믹하게' 보여주면서 '동성스윙 삼각시대'라는 멘트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애길 들었다. 거기서 가장 우습게 보이게 했던 것은 남자가 팔로워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장을 하는 것은 아주 진부한 코미디 중 하나이다. 거기서 우스워지는 것은 그 남자들이 행하는 '여성성'이다. 여자들이 남장을 하는 것도 역시나 웃음거리가 되는데, 여기서의 웃음거리는 여자들이 선택한 '남성성'이 아니라, '여자가 남성성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항상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 웃음은 성 역할의 이분법을 흔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 과장되곤 한다.

커플댄스의 팔로잉과 리딩은 아주 크게, 사회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은유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 역할을 하

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 남성이 남성역할을 하고 여성이 여성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또한 동성끼리 커플댄스를 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것을 남성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친밀성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와도 아주 비슷하다. 남자들이 팔로워를 배우려고 해도, 같은 동호회 남자 리더들이 잡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다.). 물론 커플댄스 자체가 사교 문화에서 생겨났고, 그 '사교'라는 것이 가지는 젠더체계가 그대로 커플댄스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커플댄스가 우리 사회의 젠더체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스윙 시스터즈들의 등장은 어쩌면 페미니즘과 자매애, 레즈비언이 이 젠더체계를 어떻게 흔드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여성들도 리더로 춤을 출 수 있고, 그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며, 그 즐거움은 자매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점차 뺨에서 리딩하는 여성들과 팔로잉하는 남성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무례하고, 자기 멋에만 취하고, 팔로워들을 가르치려 들고, 무리한 동작을 섰 힘으로 억지로 이끄는 남자 리더들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여성들이 더 많이 배려할 줄 아는 여자 리더들을 찾게 된다면, 혹은 더 매력적이고 몸이 가까이 닿아도 불쾌하지 않을 여자 리더들을 찾을 자유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혼성 동호회의 젠더 체계는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남성들도 팔로잉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우리들은 리더와 팔로워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끌고 끌려가는 방식이 아닌 동작들을 배우고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이제까지 스윙을 추어 온 많은 여성들이 수동적인 동작을 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오고, 그 노력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날 세 번이나 남자 리더들을 거절하고 나서, 모르는 여자 분에게 춤을 신청 받았다. 다른 동호회의 초보 팔로워였다. 기쁘기도 하고, 다음에는 모르는 팔로워들에게 춤을 청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도 났다.

by. 율래 여성주의 때문에 기쁘고 바쁘다
아마 글 속에 자기소개가 점차 펼쳐질 것임

스윙 시스터즈는 남자가 당연히 리딩을 하고, 또 여자가 당연히 팔로잉을 하는 스윙 문화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자유롭게 포지션을 정하고, '남성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춤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2002년 만들 여권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동호회이다. 특히 스윙은 실사시 형과 같은 커플댄스에 비해 남녀의 절대적인 역할 구도가 약하다고 한다. 다음 카페: cafe.daum.net/swingisters

사건지인 "버스안내양",

그녀와의 반가운 만남

* 이 글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여성노동칼럼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초봄 어느 날 나는 이문동의 한 버스 회사에 앉아 있었다. 회사 경영난 이후 노조에서 버스 회사를 인수해 민주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그 곳에서 6.70년대 버스 문간에 매달려 '오라이'를 외치던 '버스안내양' 이미란(가명)씨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버스안내양'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근무한 이미란씨는 그 많던 '버스안내양'들이 지금은 마흔이 훌쩍 넘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아가는 아줌마'들이 되었다며 웃었다.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저임금의 임시적

여성노동자'를 필요에 따라 노동영역으로 끌려왔고 1960~1970년대 많은 여성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서울로 일을 찾아 올라왔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주인공 영자처럼, 당시 여성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공장노동자로, '식모'로, '버스안내양'으로 남성중심의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었다. 여성들의 노동은 '임시적'인 것으로, 이들의 존재는 '여성노동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렇게 TV 화면의 거친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여성노동자의 이름 중 하나가 '오라이'를 외치던 '버스안내양'이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 후 도시로 올라와 '버스안내양'이 되었는데, 이미란씨 역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버스안내양의 되었다고 했다.



'오라이'를 힘차게 외치는 이미지로 머리 속에 떠오르는 '버스안내양'은 짧은 치마에 발달한 모습일지 모르나 사실 '버스안내양'들은 공장노동만큼이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열청난 노동 강도를 매일 감당해야 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쫓겨 밀리는 차에 매달려 다니는 일은 보통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파란 버스에서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신문기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부장을 지냈던 이미란씨는 간혹 안내양들이 사고가 나면 경찰서나 병원에 함께 갔었다며 그 때를 기억했다.

'버스안내양'은 또한 강하게 성별화된 노동이다. 버스 내 버스기사와 '안내양'의 구분은 명확하게



'영자의 전성시대'의 주인공 영자처럼, 당시 여성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공장노동자로, '식모'로 '버스안내양'으로 남성중심의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었다.

성별에 기반한 역할 분담이었다. 보조자로서 여성들은 남성 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돈을 계수하는 부차적인 일을 맡도록 분업됐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몸수색'이라고 한다. '버스안내양'의 주요 업무인 '요금 관리'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명분이 됐다. 기숙사의 단체 생활에서 불시에 방을 수색하거나 외출을 한 달에 3~4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이미

란씨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미란씨의 회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버스안내양'들이 있었는데, 그녀들도 종종 방수색을 당했다고 했다. 그들의 노동현장이 인권 침해와 일상적인 성적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지만, 당시의 불안한 노동 조건과 일의 절박함 속에서 여성들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집단행동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란씨는 수많은 '버스안내양'들이 함께 일했던 경험만큼은 즐겁게 묘사했다. 당시 이미란씨가 있었던 노동현장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10대~20대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많은 언니들, 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나눴던 시간, 이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 동문길의 공동화생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꼭 자신이 있는 버스를 타느라 몇 대를 그냥 보내기도 했던 일, 그 버스에 서 만났던 사람들, 스쳤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보람 있게 해줬노라 말했다. 이미란씨의 말처럼, '버스안내양'은 고되고 힘든 노동이지만 그들에게는 여너지를 쏟는 중요한 '일'이었으며, 10대 후반, 20대의 소중한 시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삶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중 다시 1980년대 중반 '시민자율버스'운행제 실시와 함께 여성안내양 제도는 폐지된다. 당시 안내양은 수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안내양제도 폐지는 여성노동력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버스안내양'을 가별게 폐지했던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버스안내양'들의 삶은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전두환의 옥화발'에 그렇게 되었다'며 실제 일을 종사하고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삶의 조건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음을 이야기했다. '자율버스'라는 이름과 독재 정권의 일방적 해고는 참으로 아이러리한 일이다.

그렇게 '버스안내양'은 노동영역에서 배제됐고, 그들의 힘겨웠던 여성 노동 현실도, 일상의 모습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미란씨는 당시 '안내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에도 자신의 노동경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거나 의미부여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말한다. 결혼할 때 '버스안내양' 일을 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는 친구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김정화씨는 1980년대 여성노동에 대해 다룬 논문에서 이런 배경이 "그들을 기억될 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비가시화됐던 여성노동자로서의 '버스안내양', 그 시절 버스를 탔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음 번에 만나면 '버스안내양' 시절의 사진들을 찾아 주겠다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이미란씨는 그 많던 버스안내양을 신명했던 존재로 다시 불러내는 이름이었다. 이미란씨의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여름이 오기 전에 꼭 그 곳을 다시 찾아야겠다.

by 이길 - 한 때 행복한 여성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멋진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해 준 여성주의 덕분에 행복하다. 이 지점에서 그 멋진 여성들과 나의 1007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만난 영화 '홀리걸'

제 7회 서울여성영화제.. 한 해 동안 기다렸던 축제는 끝났다.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매체에는 서울여성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루크레시아 마르텔 감독의 '홀리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한다. 금욕을 강조하는 카톨릭 학교에 다니지만, 왕성한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멜리아. 어느 날 아멜리아는 거리에서 낯선 남자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접촉되는 일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 성추행 범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호텔(아멜리아는 호텔을 경영하는 엄마와 그곳에서 정주하고 있다)에 묵고 있는 손님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멜리아의 엄마는 (성추행범인 그 남자의 실체를 모른 채) 그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 남자 역시, 아멜리아의 엄마에게 호

감을 갖고 접근한다(그는 아멜리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던 중 아멜리아는 또 다시 거리에서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고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다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손을 낚아챈다. 그녀의 행동에 놀란 나머지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지만, 구원에 대한 사명으로 아멜리아는 끝까지 그의 뒤를 쫓아다닌다. 결국 그들(아멜리아,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 남자)은 예기치 않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의사이자, 평범한 가장인, 그리고 어떤 이에게 매력적인 사내이기도 한 그는(레..추행 사실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꽤나 자주 클로즈업 된 그 얼굴에 혐오

물론 이 영화에선 한 '평범하고도 변태적' 인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긴장은 바로 그 일상적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그 변태적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감을 느낄리 만무하지만-...) 이제 그 추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만 남은 것이다. (어떤 이에겐, 너무 허무하겠지만) 영화는 거기에서 끝난다.

어떤 사람은 내게 그 영화를 보며 졸았으며, 그 영화를 여자 감독이 아닌, 김기덕이 만들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은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난 보면서 재미있었고 그 질문에 프악했다. 그리고 뒤늦게 든 생각이지만, 그가 졸았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와 김기덕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말해줄 걸 그랬다. 그 거리감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영화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다. 어떤 피튀는 도발적인 내용도 없지만, 그래서 예기치 못한 아주 사소한 사건 마저 심한 갈등이 되고 등장인물에게 호러보다 더 끔찍한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성추행이 이렇게 아무 일도 벌일 것 같지 않은, 누가 봐도 말끔하고 평범한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이 끔찍한 사실을 다루는 영화를 보며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란 캐릭터와 그 일상간 긴밀한 연속성 위에 성격이 부여된다. 영화는 짜릿한 혹은 못봐줄 정도의 피튀김 혹은 변태적인 것만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 영화에선 한 '평범하고도 변태적' 인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긴장은 바로 그 일상적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그 변태적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홀리걸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긴장을



죄었다 풀었다 하는 데에 있었다. 큰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치미 톡 때고 관망하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가는 그것. 특히나 의도치 않게(아멜리아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한 장소에 마주하게 된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다. 교양과 상식을 지닌 사람들 속, 썩은 내 나는 가식과 위선을 마르텔 감독은 한 소녀의 우연한 선행(?)을 통해 그 바닥까지 보여준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객만이 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듯 하지만, 그곳을 감도는 그 긴장을, 홀리 걸이 이제까지 영화와 색다른 흥미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서울여성영화제

어떤 작품에서 남은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인 지금, 김기덕이라면? 이 질문에 나는 김기덕이 아니라 마르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본다. (사실 이 영화를 김기덕 이야기를 꺼내면서 풀어내는 것이 썩 내키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엔 별 관심도 없지만, 질문을 받았으니...) 같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둘이 가는 과정과 목표지점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그것에 입정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는 그녀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당위의 문제로 혹은 어설픈 운명의 문제 끌고 가지 않는다. 마르텔 감독은 '배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한 사람을 심판의 순간으로 몰고 간다'는 메시지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다시 구원이란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추악한 행위 앞에 어쩔 수 없는 일개 인간일 뿐인 것이다. 그녀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추악한 행위 앞에 어쩔 수 없는 일개 인간일 뿐인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구원이란 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것인 것이다! 가 말하는 구원이란 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것인 것이다! 후자는 구원치고 너무 허무한 것이라 투덜뵈겠지만, 하하 어떤 초인적 행위들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취약함이 느껴지는 요즘 마르텔 감독의 구원 서사는 내게 꽤나 맘에드는 것이었다. **김기덕**

p.s 감독과의 대화에서 보았던 루크레시아 마르텔 감독은 담백한 사람인듯했다. 그 짧고 간결한 대답은, 관객들의 연속된 상징에 대한 질문에 감독은 그때마다 자신은 상징을 영두해두면서 만드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일관되게 답했다. 요즘 영화 관객들은 만드는 사람들보다 너무 앞서간다. 문제는 너무 오버해서 앞서 간다는 것이 문제. 감독의 제작의도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변변히 그 의도는 제대로 파악되는가란 문제에 회의적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당최 그 영화는 상징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다. 영화는 단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한 인간의 비참함(?)을 빠져나갈 구멍을 내주지 않고 그 추악함을 노출하고 있을 뿐. 그것이 영화의 상징이라면 상징일까. (암튼 상징을 남발한 영화들로 인해 관객들은 점점 탐정이 되가고 있다. 그런 영화들이 심어놓은 안좋은 습관이라고 해야할까.)

by 모란, 표현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이

페미니즘 너리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로 오시면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학 도서, 여성 작가들의 문학작품,
여성주의 활동을 담은 자료집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페미니리에서
여성주의를 만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 만남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글을 시작하면서 미리 밝히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본인의 심경은 매우 복잡복잡하다. 최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지 않은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기분이 다운되어 쉽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어렵게 침울함을 느끼지 못하는 등 평소와는 상당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로 인하여 회의 글은 보통 때의 글보다 좀 발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굉장히 뒤숭숭하며 뒤죽박죽일 것이라 사료되는 바, 미리 경고드린다. 물론 평소에도 그따위였는데 새삼스럽게 뭐 이런 말을?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족이겠지만, 크영.

얼마 전에 교수신문(참 신문 이름... 좀 그렇다)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컴퓨터 사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5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본다고 대답했다더라. 이에 비해 종이신문을 보는 학생은 달랑 13퍼센트였다고. 컴퓨터 없이는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즘 생활이다보니, 저런 결과를 봐도 별로 놀랍진 않은 게 사실이다. 21세기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가구당 PC 보급률 80%, 인터넷 이용인구 2500만명, OECD 가입 국가 중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인터넷 사용률 3위를 당당히도 기록하고 있는 동네 아니던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대다수도 포털사이트의 뉴스면을 거의 습관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다. 나처럼 매일 아침 집으로 배달되어오는 D일보-혹은 이와 비슷한 몇몇 '일보'들-를 읽으며 오늘도 상큼하게 욕한마디 해주는 즐거움(약간 자학의 느낌도 나지만...)을 굳이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더더욱, 생각해 보면 신문 가판대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서 읽어본지도 꽤 오래된 것 같다. 어느 새 우리의 일상적 신문읽기는 종이신문읽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면 읽기로 바뀌어버린 것.

이러다 보니 '헛, 이거 장사 좀 되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터넷 뉴스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해버린 것. 그러다 보니 '어, 세상에 이런 뉴스도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낯선 사이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 온갖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 뉴스와 그 뉴스를 만드는 사이트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빠른 시간에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그 질적 성장은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뛰어들어 뉴스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 날이날이 갈수록 선정적인 소재

와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이 잔치를 벌이며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에헤라디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상황이 초래되어 버렸다(아히고, 한숨 한번).

예를 들어, 4월 16일 '헤럴드 생생뉴스'의 한 기사 제목은 <한국 여성, 공부 않고 놀아야 취직된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어?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난히 낮고, 남녀간 격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크다'는 내용이 콕콕 펼쳐진다. 허어, 저런 기사에서 저따위 제목을 뽑는 편집자의 센스라니! 박수라도 한번 쳐주라고? 미쳤나, 달을 내 손바닥이 아깝다.

심지어 '편여성적인 시각의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트마저 생겨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권뉴스. 이름만 멋진 이 사이트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와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이라는...이 추가 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해 앞장서는 곳이라고 자신들이 직접 밝히고 있다(기가 찬다). 토론마당에 들어가 보면 여성단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담은 글들이 좌르르 펼쳐지고 회원마당에서는 '남녀평등국방의무추진기회단'의 회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떠 있다. 아주 잘들 놀고 계신다.

게다가 정말 유감인 것은,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물론 많은 기사들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역차별이나 여성주의자들의 특정한 활동 등을 소재로 삼은 기사의 경우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모니터 뒤에서 얼굴과 이름을 숨기고 사이버마초가 되는 남성들과 시너지 효과를 이뤄 매우 높은 조회수와 엄청난 양의 이른바 '한줄의견'을 양산해낸다는 것이다. 성매매 옹호자들, 성폭력 가해자 옹호자들, 역차별에 찬성하는 사람들, 여성주의와

이 단을 무시했지만, 혹시나 해서 읽어보는 것... 어느 기사도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뉴스를 제공받은 포털사이트의 페이지랭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를 만들어낸 뉴스 생산자들은 포털사이트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뉴스 생산자들에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신들의 기사 게재가 크게 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980333 (223.146.xxx.171) 04-28 15:18:56

달 대-가려도 저보단 낫겠다...

990919 (223.186.xxx.225) 04-28 15:00:06

진짜 재미있다... 여성단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990919 (218.235.xxx.52) 04-28 14:13:12

재미있다. --- 화해란 것도 프로로봇보고 남녀이별이나 한심하다.

990919 (203.253.xxx.151) 04-28 13:59:45

꼭도 넣지 그려나...

→ 여성인물을 화제에 넣자는 기사에 대한 리플들

여성주의자들에 대해 근원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증오나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사실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다)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물만난 고기가 된다.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사의 내용이 아니다. 그 기사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성매매를 반대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비판하고 역차별의 모순을 지적하고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을 고무하는 기사건 말건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마음껏 배설해 낼 수 있으면 되니까. 네이버에 제공되는 여성주의 뉴스사이트 일다(www.ildaro.com)의 기사에 내용과는 동떨어진 여성주의(및 여성주의자)에 대한 비난의 의견들이 홍수를 이루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독해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한 5~10% 정도?).

네티즌들의 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대의 여론을 만들어내겠다는 포털사이트 뉴스면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빠르고 편리하게 뉴스를 배달해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등-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씹어보기도 싫은 기사들과 쳐다보기도 싫은 한줄의견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우리 시대의 여론'을 생성해내려면, 여론 따위 무슨 필요 있냐는 자조적인 푸념을 금치 않을 수 없는 2005년 봄, 기분 안좋은 날의 여전한 푸념무렵. **by_ 늘 모두들 건강, 하세요**

싸우는 여성이여 우주를 통치하라 [웃음]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원제 美少女戦士 セラム?)



이번에 애길 꺼내볼까 하는 작품은 다케우치 나 오코 作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이하 세일러문)』입니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에 친숙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서두를 풀어내자면, 『세일러문』은 아무래도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보기엔 좀.. 오히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그녀들의 모습에 강한 불쾌감을 가졌던 분들도 계신 듯하니까요. 그치만, 역시 싸움이라든지 우주통치와 같이,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나 등장할 법한 '좀 여자에답지 않아'라는 그런 소재들을 여성의 것으로, 그것도 '순정만화'에서 끌어내는 건 또 그리 흔한 것만은 아닌 듯하여서요. 뭐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꺼내보고 싶지만은 오늘은 살짝, 『세일러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두 가지 소재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 히어로물¹⁾ 2

'요즘' 이라고 애길 꺼내보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지만.. 이른 '요즘', 영화에 만화에 히어로물 바람이 갑자기 몰아쳤던 적이 있죠. 캣우먼이라는 이름으로 잔뜩 섹스어필을 강조한 여성을 여전사랍시고 내놓은 영화도 있었군요.

얘기를 꺼낸 김에 생각해 보면, 만화에선 '여성 히어로'가 별로 없네요. 울트라맨, 드래곤볼, 독수리 오형제 등등등은 다들 남성 히어로이고.. 아, 독

1) 우와와, 아무래도 '남자주인공'이라는 의미 없고 있는 '히어로'란 단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여성 히어로물'이라는 것도 말만 되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기분 나빠했습니다. '영웅'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hero와 great man에 있는데다가, 영웅이라는 단어에서도 '활활무르' '영' '불수' '왕'의 단어를 쓰는군요. 불의 대제할 단어도 없고 해서, 기분 나쁘지만 일단 '히어로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기분 나빠~

2) 참, 히로인(heroine)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듯 하여서 히로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을 다시 보자면, 히로인이라는 단어는 일단 여성주인공이란 의미는 맞지만, 영웅적인 여성주인공이라고도 히어로성을 보조하는 역할의, 뭐 치면 꼭 쓰러지는 코스모스같은 여주인공이란 느낌이 너무 강한 단어에서요. 이것도 이것대로 기분나쁘죠. 여하튼 부득이하게 '여성 히어로'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리 오형제 중 한 놈은 여성이었던 것도 같지만 뭐 이걸, 참내 나는 사나이들의 세계의 등장하는 한 송이 꽃이란 느낌이 들어서야.. 영화를 총동원해야 캣우먼 정도가 있네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설적인 '히어로' (?)..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오로라 공주님²⁾이...

여하튼 세일러문은 그 몇 안 되는 '여성 히어로물'이라는 사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여기서 여성 히어로라 함은 정말 발로 차고 뛰고 날고 치고 받고 코피 흘리고 두들겨 패고 싸우는 여전사를 말합니다.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님 주사기를 들고 댄스든가 하는, 웬지 모르게 좀 여자에스러워야 할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여전사(?)가 말구요.

싸우는 형태도 그렇지만서도, 『세일러문』에선 주인공 언니들이 싸우는 이유도 멋집니다. 대부분의 소녀대장 만화에선, 마법을 쓰는 소녀들이 전투?를 벌이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슬퍼서라는 게 많죠...[...] 아니 뭐 그런 이유로 싸우는 게 더 슬프긴 합니다만..;

여하튼 『세일러문』의 세일러전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정의' '연애감정' 등과 같은 이유로 포장되어 있긴 하여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 라든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온하계를 지키기 위해서, 와 같은 이유들일죠. 소녀만화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5살 짜리 꼬마여자가 세계를 구하겠노라며 전쟁놀이를 하고 있으면 아마 좀 여자에답게 놀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갈테니까..

이 싸우는 이유가 얼마나 '여자답지 않냐면' 주인공 공인 세일러문은 기억을 잃어버린 왕자님을 악의 손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좀 낮간지러운 옛날 영화에서, 잠든 공주님을 향해 백마탄 왕자님이 뛰어가는 게 생각납니다만.

3) 우와와에서 나오신 분이고, [목소리] 속 1세대 초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라는 걸지도 언제지었습니다.



그치만, 역시 싸움이라든지 우주통치와 같이,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나 등장할 법한 '좀 여자에답지 않아'라는 그런 소재들을 여성의 것으로, 그것도 '순정만화'에서 끌어내는 건 또 그리 흔한 것만은 아닌 듯하여서요.

다만 세일러문은 구독연령층의 한계³⁾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안타깝긴 합니다.

■ '세일러문'

'히어로'의 포인트는 절대로, 의상입니다. 코로-슈퍼맨이 누구랑 뽀빠에 싸웠는지 보단 팬티를 밖 에 입었던 사실이 더 기억에 남으실다던지, 원더우먼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단 미국국기를 온몸에 휘 감고 다녔단 사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으실다던지

하시진 않나요? '히어로'의 포인트는 절대로 의상이 아니니까요.

어른, 세일러문도 '히어로물'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의상이 포인트입니다.

애니에선 원작보다 좀 짧아진 세일러복을 입고 다니느라 취향 나쁜 오라버니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세일러 전사들이 전투 중에 입고 있는 세일러복의 의미는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세일러 전사들이 입고 있는 세일러복은 교복의 변형이거든요.

중고딩 시절 교복을 입었던 기억은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자애들한테는 교복이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축구나 말뚝박기 같이 '거친 놀이'는 하면 안 된다든가, 교복 입은 남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좀 날라리'지만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쌍수가 노란 년'이 된다든지 하는 거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여성의 교복은 남성의 교복보다 아무래도 좀, '품행방정'이라는 네 글자가 더 크게 적혀 있달까요. 덧붙여 남성의 교복에는 안 적혀있는 한 마디가 더 적혀 있기도 하죠.

정숙

『세일러문』은, 이런 정숙해야만 하는 여성 교복을 화끈하게 전투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학생도 교복을 입고 발차기 해도 된다고 화끈하게 보여준 셈이죠. 좀 더 확대해석을 하자면 이진 교복의 금기 뿐 아니라, 뛰면 안 돼 발차기 하면 안 돼 라며 그 동안 암묵적으로 요구되었던 여학생에 대한 금기 또한 화끈하게 깨버린 거죠.

『세일러문』은 아무래도 그 분량이 좀 방대한 대작이다보니 재미난 포인트가 무지무지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기엔 지면 부족과 자폐의 역량 부족이 겹친다는 게 무지 안타깝네요 ㅠ ㅠ

모계사회, 이성애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여성과 남성 경계 파괴, 다양한 여성군상의 등장, 소녀들의 파



좀 더 확대해석을 하자면 이진 교복의 금기 뿐 아니라, 뛰면 안 돼 발차기 하면 안 돼 라며 그 동안 암묵적으로 요구되었던 여학생에 대한 금기 또한 화끈하게 깨버린 거죠.

라다이스에 피어난 한 송이 꽃 틈시도 가면이라든지 하는 이러저러한 재미난 요소들은 역시 자폐의 입담으로 풀어내는 것보단 읽으면서 하나 둘씩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더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기는 요기까지 접을게요.

그럼 다운 늦봄, 모두들 몸조심 하세요♡



by_ 자매 어 보기만 해도 덩다

제3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5월 24일~5월 27일

5월 24일~5월 27일

성적 폭력이 일상화, 정상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문화제를 함께 열어가고픈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가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보아요.

신청 : fenergyup@yonsei.ac.kr
02-2123-3645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여성학학교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여성학학교 졸업(?)후기를 쓰는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란 부제를 단것은 여성학학교에서 나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성찰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학학교를 시작할 때는 '남성인 내가 기도 되는 것인가? 남성으로서 20년을 넘게 살아온 내가 혹시 알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사람들과 진지하면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안에 들어있는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불편한 느낌도 아니고, 왜 이제껏 이런 모습으로 나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생길 정도로 여성학학교에 감속이 매진하게 되었다. 처음에 몰래 했던 걱정들은 사실 내가 여성주의를 타자화 하여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재작년부터 여성주의를 접했던 나는 나름대로 '나는 성별 권력관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화자찬하며 살아 왔었다. 하지만 삶의 문제들에서 나의 이상과 현실속의 나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나의 삶속에서 주변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학학교를 접하게 된 것이다. '성매매여성'의 이야기, '동성애', '가족 이데올로기', '여성노동', '장애여성 동등 평소에 알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

'끊임없는 자기성찰' 그것은 나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알아가는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었다. 하지만 여성학학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알아가는 것은 '아 내가 모르는 구나!' 하는 자각 이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었나, 나의 삶속에서 얼마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나 동성애자, 장애여성들을 타자화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가? 를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먼저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일생동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해법을 알려주셨다. '끊임없는 자기성찰' 그것은 나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알아가는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성찰해가면서 여성주의적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것 그것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됨과 동시에 나의 앞으로의 삶을 그려나가는 연필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매번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회의 권력관계와 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만, 공통된

사회적 억압의 모습에서 나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물론 그 시작은 내 주위의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목격적이거나 서로에게 역할로서의 억압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애인과의 관계에서)에 대한 고민이었다. '관계'에 대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가? 애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등등 물론 지금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괴로운 고민들 이지만, 그와 동시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했다.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려나가는 삶,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걱정이지만, 여성학학교안에서 받았던 물음들 전부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기분으로 이 '거울'을 오늘도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것이다.

by_ 뽕 마음의 성sum을 벗어나 누군가
사람을 더해주고sum 싶은 아이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4, 5월에 각 단대에서 진행했던 교수성폭력 자보전과 강의실 유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외람된 그녀들의 반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가끔, 옛말도 그럴 때가 있는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가 바로 그것이다. 예석하게도 우리는 마냥 존경할 수만은 없는 마초적 스승을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수업 중 공공연히 자행되는 교수 언어 성폭력, 94년 신정휴 교수 성폭력 사건 이후 공분화된(혹은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수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은 명백히 이곳,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03년 사회복지학과 K교수, 사학과 P강사, "교재비 없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라"의 법학과 K강사의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언어 성폭력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교수에 의한 언어 성폭력은 성폭력이 전제하고 있는 성별 권력관계에 지식 권력, 나이 권력이 가중되면서 가해 교수의 가해는 더 쉬워지고, 피해 학생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교수 언어 성폭력, 그 흉악한 그림자.

언어 성폭력은 여성의 몸과 성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여성을 생산의 도구이자 쾌락의 도구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몸에 대한 단일한 미적 기준을 강제하고 성 매매/성폭력을 변호한다. 이렇듯 언어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여성 억압은 남성이 가진 권력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데,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교수 언어 성폭력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교수 언어 성폭력은 여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온전치 못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하는 사회적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폭력 가해 교수가 가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은 여학생의 학업에 대한 동기 및 기회 부여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여 여성의 학문적 성취에 타격을 가한다. 또한 교수가 가진 학문적 권위 및 학점, 수업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 등

의 물리적 힘이 문제제기를 방해하여 학생들을 성폭력에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성차별주의를 학습시키고 있다. "귀여워서", "농담으로"한 말이니 내 말을 성 폭력적으로 듣지 말라는 가해 교수의 빈정거림, 여성의 불쾌감을 지나친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수업 분위기는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길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전북 모 사범대학교의 교수 성폭력 사건처럼 강의실 내 언어 성폭력의 암묵적 '허용'은 점점 더 심각한 언어 성폭력을 불러올 것이며 육체적 성폭력으로 연장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뭔가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

스승의 가부장적 그림자를 지워 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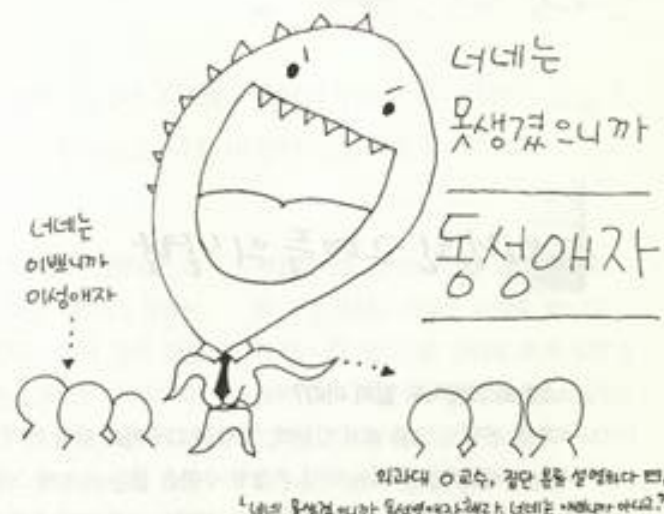
언어 성폭력은 말을 통해 행해지는 가장 일상적인 형태의 성폭력이다. 어떠한 문제의 일상성은 그것이 얼마나 무한히 반복되는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역설해준다. 교수 언어 성폭력은 연세대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 교수 및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교수사회에 맞서 교수 언어 성폭력을 근절하자. 우리는 교수 언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수업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모든 교수들의 반성폭력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비하 발언에 대하여

교수의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다. 남성중심적이며 동시에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의 동성애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들은 강의실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격당하는 심각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변의 이성애자 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을 유머로 인정하고 웃고 넘기는 것 역시 대학 공동체에서 성소수자가 심각하게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불문과 K교수는 수업 시간에 남성 동성애자를 종종 '효모'라고 회화화시켜서 표현한다. 자신이 프랑스 유학 시절 동성애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느낀 거리감을 '효모'라는 말로 회화화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을 일컫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한 인간의 성정체성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외과대 O교수는 집단을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던 중 학생들을 향해 '너희는 못 생겼으니까 동성연애자 집단 해라. (다른 쪽을 보면서) 너희는 예쁘니까 아니고.' 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물이해는 언어 사용에서 쉽게 드러난다.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연애'라는 행위로 동성애자를 정체화하는 것이며, 이 말에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천하는데 대한 편견이 투영되어 있다. 이성애자라고 해서 항상 어떤 이성애 연애중인 '이성연애자'가 아니듯이 동성애자 역시 '연애'라는 말을 붙여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의 발언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일정한 것, 무시할만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어른 말 잘 듣는 학생', '어른 말 안 듣는 학생'을 가르듯이 '예쁘다'와 '못생겼다'는 말로 위계를 표하면서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쪽에 '동성연애자'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대한 억압은 한국 사회에서 무척이나 굳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강의실에서 오가는 동성애 혐오 발언은 이러한 억압을 가중시키고 성소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뒷받침한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학내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이성애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식년을 받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되라?

몇 주 전 수업 중 성폭력 발언을 한 고려대 K교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던 수업도 그만 두고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안식년이란 5년 동안의 재직 활동 후,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식 휴가이다. 이런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내어,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교수에게 맡고 있던 수업마저 그만두게 하고 안식년을 주어 휴가를 떠나 보내게 한 학교는 도대체 성폭력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가?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성폭력 사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쉬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만이 "깨끗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교수의 권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어서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매우 큰 결심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시화·공론화된다 하더라도, 교수-학생간의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는 학생의 문제제기와 피해를 드러내기 힘들게 한다. 이제까지의 성폭력 사건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학생이 가해 교수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역고 소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물며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성폭력 사건이
대책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 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만 보더라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구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상대적으로 사건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교수들이다. 그러나 교수위원들은 성폭력 사건 지원과 처리에 있어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는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낳게 했다. 하물며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성폭력 사건이 대책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수성폭력이라는 것이 피해 학생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수와 강사에 대한 반성폭력 교육조차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2003년 교수 학생 협의회에서 약속된 적이 있었던, '강의평가서에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항목 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교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 심각성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교수와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 떠넘김으로써 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2차 가해

강의 중 언어성폭력 사건에는 그 발언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업 중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으며, 크게 웃거나 은근히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강의실 안에서 그러한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나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침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교수나 강사들이 학생들의 '즐거운 수업'을 위해 (누구의 즐거움일지 의문이지만) 성폭력적인 발언을 던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유머로 흔히 쓰이는 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런 말들을 웃어 넘기거나 그 말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민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은,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는 이러한 태도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교수는 학생의 시각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강의 중에 발생한 언어성폭력, 또는 가부장적인 태도나 말로 성폭력적 문화를 뒷받침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난히 진지한 대화나 이에 따른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강의실 안의 남성중심성은 전혀 자기정화 능력을 갖지 못할뿐더러,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괴로움과 분노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의 중에 등장하는 성폭력적인 말에 대한 가장 흔한 변명은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변명을 용인할 수 있는 '수업'의 주체는 누구일까. 몇몇 사람들의 이해와 재미를 위해 수업 안에 있는 여성들을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적인 틀 안에 자신을 집어넣거나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면서 배제시키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 넘겨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강의실 안의 남성중심성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진지한 논의를 막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수업 모니터 모집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강의실 고정화된 성역할을 '사람의 도리' 인양 얘기하는 교수 성소수자 혐오발언 - 이성애자들의 끝없는 오만과 편견..... 그 일상적인 폭력의 정상화에 반대합니다.

개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과, 그 상처를 합리화하는 교수의 발언들은 그 말이 낳는 폭력에 둔감해지게 하고 익숙해지게 하며,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배움의 과정으로서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성폭력적인 이야기를 거부할 것을 교수들에게 알리고, 강의실 언어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함께 모아갈
수업 모니터를 모집합니다.

fenenergyup@yosnei.ac.kr

02-2123-3645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